

光日春秋

정 목 일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숭배하는 인물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다. 한 때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이 세워져 있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좋은 정치를 편 대왕으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민족의 태양', '삼웅'으로 불려진다. 이순신 장군은 동상에서도 어김없이 긴 칼을 잡고 있다.

경상남도는 역점사업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순신 장군을 세계화하고 남해안시대 문화관광을 선도하기 위해서 1천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알리기, 거북선 건조 등 세계화 작업과 이충무공 정신선양, 거북선 탐사 등 19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일본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이순신 프로젝트 중 흥미로운 것은 거북선 찾기이다. 경남도에서 이번에 거북선을 찾는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거북선이 수장된 된 곳으로 예측되는 거제 칠천량 해저를 샅샅이 뒤져 거북선 잔해를 찾아내자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 대로에 긴 칼을 든 구국의 영웅으로 서있다. 이순신의 손은 칼만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한 손은 붓을 들고 있었다. 그는 해군의 사령관으로서 칼을 들고 작전지휘를 수행해 23전 전승으로 조선을 구하고 세계 해전사(海戰史)에 찬란한 기록을 남겼다.

이순신은 칼을 들고 작전지휘를 하였지만, 한 손은 붓을 들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휴식과 수면이 필요했다. 그의 건강은 곧 국가존망과 결부돼 있었다. 밤이면 보초 이외에 모든 군졸들이 취침해 내일의 전투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장군만은 잠들 수가 없었다. 그가 수행한 전투와 전쟁 상황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군졸들이 잠에 빠진 밤중에도 장군은 먹을 갈고 붓을 들어야 했다. 장군은 당시 문무백관들에 의해 일등공신으로 책봉됐다.

이순신 장군의 붓

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전투 상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함을 느꼈다.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망각의 바이러스를 풀어 사실과 진실을 퇴색시키고 소멸시켜 망각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진왜란은 조선을 바닷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했고, 전쟁 중에 가장 고단하고 고뇌하고 잠 못 들어 했던 사람은 이순신이었다. 그는 7년간의 전쟁 중에서 단 하루라도 마음 놓고 잠들 수 없었다.

그의 손엔 칼과 함께 붓이 들려 있었다. 그가 수행한 전투가 기록되지 않아 훗날

일모로 전해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낱 전설이 되고 설화가 되어 떠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파장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장군이 잠들지 못하고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기록해 놓은 '난중일기'는 그의 일생 전부이자 생명이자 다투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는 국난을 수습한 인물을 가려 공신을 책봉했다. 일등공신에 오른 인물은 육군에 권을 장군, 해군에 이순신, 원군 장군이었다. 이 세 사람은 당시 문무백관들에 의해 일등공신으로 책봉됐다.

그러나 4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순신과

원군의 평가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순신은 민족의 태양, 성웅, 불멸이라는 최상의 상징성으로 추앙되지만, 원군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순신과 원군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통해 자신의 기록을 남겼고, 원군은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점이 큰 차이를 만든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달인 1592년(선조 25) 5월1일부터 전사하기 한 달 전인 1598년 10월7일까지의 일기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으므로 본래는 이름이 없었으나, 1795년(정조 19년) '이충무공 전서'를 편찬할 때 '난중일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찾기는 해저 속에 묻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다만 급속한 시간에 의해 녹슬고 형태도 없이 해체되고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잔해를 건져낼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린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 (국보 제 7호)는 영원 속에 그대로 남아 그를 역사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위대성은 건국의 영웅에 그치지 않고, 그가 치룬 전쟁을 기록함으로써 역사와 진실을 증언하고 자한 점이다. <수필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광양·부산항 '투 포트 정책' 포기할 건가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북아의 중심 항구로 육성하는 '투 포트(Two-Port-양항)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전국 곳곳에 신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당경쟁과 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공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7개 권역에 18개 신항만을 건설할 예정이다. 인천 신항 17개 선석, 새만금 신항 16개 선석, 울산 신항 20개 선석 등 2011년까지 모두 304선석이 건설된다. 국제적 수요 예측과 대책 없이 항만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집중 육성하겠다는 '투 포트정책'은 포기한 것이냐 다름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항만 개발이 모두 끝날 경우 처리 예상 물동량은 14억448만에 달하게 된다. 국내외 물동량 증가세를 감안해도 도저히 채우기 힘든 규모다. 광양항은 개항 10년을 넘었지만 부두

시설 이용률이 31.4%에 그칠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획기적인 물동량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내년에는 터미널 운영사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환 출범하면서 주요 수입원인 부산항까지 빠져나가게 돼 있어 경영환경이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광양항은 배후도로와 물류단지 등이 확충되지 않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북아시아의 주요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광양항의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비중은 지난해 9.9%에 불과하다. 특히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1년 17.1%에서 지난해 6.7%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항만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각국은 선박과 집중을 통해 허브항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 포트 정책'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의 물류 인프라부터 확보해야 한다.

서민 우리는 불법 사채업자 뿌리 뽑아야

급전을 빌려주고 최고 80%를 넘는 폭리를 취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영세상인과 서민 등 1천여명을 상대로 고리의 톱날이를 한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이 사기치기 같다.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놀랍다. 광주지역 상인 등에게 20여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 연 49%를 훨씬 넘는 120~807%를 받아 9억3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대출을 하면 서 선이자 3~9%를 공제한 뒤 일수 형식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경계가 어려우면 서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은 사채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돈을 빌리고 있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생계와 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금리를 따질 여유가 없어 사채를 끌어쓰지만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빚을 갚지 못한 서민과 영세 사업자들은 무자비한 협박과 모욕에 시달려야 한다.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친지를 괴롭히고 차압 등 강제 집행도 서슴치 않는다. 얼마 전 자살한 텔런트 안재환씨처럼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다.

사채시장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들의 폭력이나 협박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경제위기에 편승해 일반인의 휴대전화에 사채를 쓰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고 있을 만큼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불법 사채를 뿌리 뽑으려면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광고, 전단 등이 홍수를 이루면서 피해자가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은 일회성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 사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새만금은 16년여 공사 끝에 부안~군산간 33km의 방조제를 쌓은 대역사(大役事)다. 새로 생겨난 땅이 1억2천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른다. 새만금사업은 초기부터 환경 파괴를 우려한 시민사회 단체의 거센 반발로 4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새만금 사업은 대체 농지 조성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 확보를 위해 시작됐다. 농림부가 주무 부처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새만금은 '동북아의 두바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자 중국, 일본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밀그림이 확정되면서 이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면적의 39%는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에 배정하고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0%로 한정했다.

그러나 전남도 입장에서 새만금의 화려한 변신은 부당스러울 수밖에 없다. 카지노에 골프장, 우주항공산업 기지 등 새만금의 장밋빛 시나리오는 전남의 역점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새만금 인근의 고군산군도에 대형 호텔이 들어설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화물도 물리게 돼 광양항 활성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만금특별법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가 설치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 실천계획이 확정된다. 도시계획심의마저 무산되는 등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J프로젝트와 확연히 비교된다.

그렇다고 광주와 전남·전북이 갈등을 빚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재 '5+2' 광역경제권' 수립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등 호남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과 J프로젝트가 윈-윈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 걸까.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새만금



기 고



정 희 종

벌써 15회째를 맞은 광주 김치축제인데 그 내용을 보면 방향각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도 그렇고 추진 방법도 기대에 못 미친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대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광주 김치축제의 초창기 7년여 동안 나름대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대학의 김치 전문 교수로서 이번 제15회 김치 축제현장을 돌아보고 광주김치제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광주 김치축제의 생명인 김치전시관은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나 초라해 한산할 정도였고 더구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내국인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들이

경으로 덮여있는 부스는 거의 없었고 축제공간이 옥외 특히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일으키는 흙먼지를 감안했을 때 위생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상태였다.

광주 김치축제는 광주김치(남도김치)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김치로 육성하면서 지역 김치산업체에 의해 김치의 산업화를 주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다.

이번 축제에서처럼 지역 김치생산업체가 행사 5일 동안 김치판매에만 참여해 김치를 팔아 과연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가? 그 수입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김치축제를 통해 지역 김치

광주 김치축제 이래서는 안된다

뭔가 물어보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는 도우미 학생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함을 느낄 정도였다.

김치체험행사 등도 다양하면서도 알찬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지역 김치생산업체들도 전시, 체험 등의 여러 가지 축제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 업체들의 김치 제조기술 및 김치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김치 생산업체들의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단순하게 김치판매에만 전념하는 모습이였다.

그리고 묵은 김치 등을 빙자한 음식점 영업, 김치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 식재료 판매점의 상업 행위 등이 김치축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치 및 일반 식재료 판매부스의 위생상태도 우려할 수준이었다. 판매 중인 김치 및 식재료가 투명 플라스틱 뚜

생산업체와 소비자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공장김치를 만나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홍보 기회를 통하여 김치생산업체의 공장김치 맛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면 가정 김치(또는 인근 부식가게김치)의 시대에서 공장김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김치의 산업화이자 바로 광주김치축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다.

이제 2009년이면 우여곡절 끝에 광주 김치박물관도 완공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광주 김치축제가 광주김치의 새로운 비전과 산업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의 핵심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김치축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모습의 김치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광주 시민들은 물론 지역 김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남대 식품공학과 교수>

장애·비장애 학교 담장 허무니 편견도 사라져

얼마전 진정한 대전에 갔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다. 대전시 동구 가오지구에는 가오초등학교와 가오중학교, 대전맹학교, 해광학교 등 4개 학교가 있다. 모두 다 2m짜리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해 있었는데 대전맹학교는 물론 해광학교도 정신장애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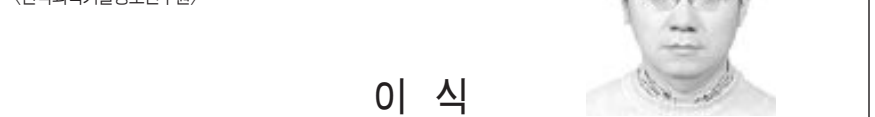
그런데 그 담을 허물어 없앴더니 장애인 학생들과 일반학교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이른바 편견을 허물어 버린 것이다. 결국 편견은 어른들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만 존재했던 셈이었고 동심은 그대로 맑았고, 아이들에게 편견이란 또 다른 장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대전시, 동구청, 교육청, 4개 학교 교장, 학부모들이 모여 담장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 관계기관의 결정도 훌륭했지만 이를 수용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실로 존경스럽기만 하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들도 이를 배우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선희·목포시 놀도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이 식

영화 '토탈 이클립스(Total Eclipse)'는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렌느(Paul Verlaine)와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의 동성애적 사랑을 그린 영화로 유명하다. 지금에야 동성애에 대한 영화가 흔하지만, '토탈 이클립스'가 개봉되던 1995년만 해도 프랑스의 두 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인 동성애 행각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또 당시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현재 시인 레오나르도 등장한 것 역시 적잖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영화에서 랭보로 분한 디카프리오는 녹색의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있다. 이 녹색 술이 19세기를 풍미했던 압생트(Absinthe)란 술이다. 이 술은 1750년대에 스위스에서 처음 제조되어 19세기 중엽에는 전 유럽에서 인기있는 술이 되었다. 포카상, 마네, 피카소, 고흐 등 낭만주의 시인과 화가, 소설가들이 압

투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생트의 중독 성분 때문에 유럽 각국은 20세기 들어 대부분 압생트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던 압생트가 20세기에 들어 잊혀진 술이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압생트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즉, 압생트가 화가들을 괴롭힌 치명적인 중독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생트가 치명적 독성을 띠고 있다는 소문이 난 때에는 압생트 판매량이 와인 판매량을 초과하자 이를 경계한 프랑스의 와인 제작자이자 이를 경계한 프랑스의 와인 제작자들의 로비로 한몫을 했다고 한다. 압생트 제조가 금지되던 20세기 초에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투존의 함량을 측정하기보다는 적당히 예측한 경우가 많았다. 이 당시 화학자들은 압생트의 투존 함량을 350mg/L(여전히 독성을 일

화가들의 녹색 요정 '압생트'

생트를 즐겨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낭만주의 예술가들에게 압생트가 이토록 인기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녹색과 사과 맛 브랜디라는 압생트 특유의 맛도 있지만, 이 술 안에 투존(Thujone)이라는 환각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투존은 중추신경에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며, 지각장애와 정신착란 그리고 간질과 유사한 발작을 일으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분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압생트의 환각성분은 화가들의 예술적 정서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도 했다.

독특한 작품세계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는 압생트를 즐겨 마신 나머지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다. 압생트에는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테르펜(terpene)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다. 고흐의 그림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시작장애나 알코올 중독, 정신착란의 징후가 발견되는데 이처럼 독특한 고흐의 색깔에 압생트도 한몫한 셈이다. 특히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머물렀던 아를(Arles)에서 탄생한 그림에는 기묘하게 혼합된 노랑과 파랑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금단현상에 시달리던 고흐는 불감회색으로 쓰이는 테레펜틴(turpentine)을 마시려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테레펜틴에 압생트 성분 중 하나인

우키기에는 충분한 양이 아님)이라고 추정했는데, 현재의 기술로 같은 압생트의 투존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해보면 고작 5mg/L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압생트에 든 독성의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메탄올과 알코올, 알데히드의 양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고, 원자 흡수 분광법으로 구리,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로 인티몬의 양을 측정했다. 이 결과 역시 비교해 깨끗하며 불순물의 양이 거의 없었다. 압생트를 사랑했던 예술가들이 건강을 잃었던 이유는 압생트의 독성 때문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던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와 압생트 팬들의 청원에 힘입어 1988년 마침내 압생트 금지법이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주류에는 35mg/L 이하의 투존 함유가 허용된다. 2007년에는 마침내 미국에서도 압생트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레마르크의 '개선문'에는 파리의 카페 푸케(Fouquet's)가 주요 무대로 등장한다. 주인공인 라비크와 조앙은 이 카페에서 처음 만나 압생트를 나누어 마신다. 푸케는 파리 샹젤리제에 실제로 있는 카페다. 화가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압생트를 실제로 한번 마셔보는 건 어떨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정취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